

# 건국·과도기의 문법 교과서와 문법 교육의 특징

허재영\*

|| 차례 ||

- I. 서론
- II. 건국·과도기의 문법 교육
- III. 건국·과도기 문법 교육의 특징
- IV.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건국·과도기’(1945-1955)의 문법 교과서를 통해 이 시기 문법 교육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수요목’과 교과서 제도를 기술하고, 이 시기 발행된 교과서 29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이 시기 문법 교과서의 저자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시기 교과서의 복수 저자로는 최현배(6), 장하일(4), 정렬모(3), 김윤경(2), 이승녕(2), 이희승(3), 정인승(3) 등이 있다. 둘째, 이 시기 문법 교육관을 살펴본 결과, “문법=말의 법칙”, “문법 교육의 필요=말과 글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의사소통 관점)”라는 등식이 일반적이었으며, 일부 문법학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교재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재가 의사소통을 위해 문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였다. 셋째, 문법 교육의 내용은 ‘음운, 어휘(단어와 품사), 문장’의 세 부분을 중심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문법 술어 사용이나 품사 분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차이가 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술어 사용이나 품사와 관련된 이견이 많았는데, 그 결과 학교 문법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넷째, 교수 학습 방법, 평가 원리는 ‘익힘’, ‘연습’ 중심의 익히기에서 ‘종합적인 문법 교육’을 지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문법 교수·학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습 방법이 ‘이해중심’에서 ‘탐구중심’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제어 : 문법 교과서, 문법 교육, 문법 교육관, 내용, 교수·학습 방법

## I. 서론

이 논의는 ‘건국·과도기’ 또는 ‘교수요목기’로 불리는 1945년부터 1955년까지의 문법 교과서를 통해 이 시기 문법 교육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어 교육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미군정기’를 ‘과도기’로 설정한 예로 박봉배(1987)가 있으며, ‘교수요목기’ 또는 ‘건국기’라는 용어는 윤여탁 외(2006)에서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용어가 1945년부터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의 공포되기까지를 나타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허재영(2011)과 마찬가지로 ‘건국기’와 ‘과도기’를 합쳐 ‘건국·과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시기 문법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는 김민수(1986), 왕문용·민현식(1993), 김광해(1997), 이관규(1998, 2004가, 나) 등에서 비교적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다. 각 논자마다 시대 구분이나 개별 문법 교재의 특성을 짚어내는 방식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건국·과도기의 문법 교육은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나 국어 문법을 본격적으로 교육한 시기’라는 점, ‘통일 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점 등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군정기’, ‘정부 수립기’, ‘전시 이후’의 각 시기마다 비교적 여러 종의 문법 교과서가 발행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제4차 교육과정의 국정 ‘문법’ 교과서가 등장하기까지 지속된 경우가 많다.

이를 고려하여 이 논의에서는 1946~1947년에 공포된 <교수요목>과

교과서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교수요목’의 영향 아래 발행된 문법 교과서의 대상으로 ‘문법 교육의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및 평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 기술하는 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 II. 건국·과도기의 문법 교육

### 1. ‘교수요목’과 ‘문법 교육’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국어 교육계는 ‘각 급 학교 개교 명령’(법령 제6호)의 공포와 함께 급격한 변화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는 빼앗긴 국어를 되찾고, 국어로 모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충분히 대비할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광복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선어학회’에서 임시 교재 편찬을 결의하고, 시급히 『한글첫걸음』, 『초등국어교본』, 『중등국어교본』을 편찬하였으나, 이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sup>1)</sup>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 학무국은 1945년 9월 30일 ‘교수요목’이란 이름으로 교육과정의 일부분을 결정·발표하였는데, 그것은 수업 시간만 결정한 것이었다. 그 후 1946년 2월 21일 조선교육 심의회에서 ‘교수요목제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 위원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국민학교 교수요목’(1946.9.1.)과 ‘중학교 교수요목’(1947.9.1.)<sup>2)</sup>을 공포·시행하였다. 이 교수요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군정기 교육 관련 주요 사항은 박상만(1959), 박봉배(198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 ‘교수요목’의 시달 및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혼란이 있다. 예를 들어 박봉배(1987:518)에서는 1946년 11월 15일에 교수요목이 제정·공포되었다고 기술한 바 있으나, 교육부(2000)의 ‘국민학교 교수요목’ 시행 시기는 1946년 9월 1일자로 기술되어 있으며, ‘중학교 교수요목’은 1947년 9월 1일자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문서에 기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1) 국민학교, 중학교 교수요목

ㄱ. 국민학교 교수요목

(一) 교수 요지

국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과 글을 익혀, 바른 말과 맞는 글을 잘 깨쳐 알게 하고, 또 저의 뜻하는 바를 바르고, 똑똑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힘을 길러 주고, 아울러, 지혜와 도덕을 북돋우어, 국민된 도리와 책임을 깨닫게 하며, 우리 국민성의 유다른 바탕과 국문화의 오래 쌓아온 길을 밝히어, 국민정신을 담백 길러 내기에 뜻을 둔다.

(二) 교수 방침

- (ㄱ) 국어와 국문의 짜여짐과 그 특질을 알게 하여 바른 글을 찾게 하며, 저의 일어나는 생각과 몸소 겪은 바를 밝고 똑똑하게,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다.
- (ㄴ) 국어와 국민성의 관계를 잘 어울리게 들어내어, 국어를 잘 배움으로 우리 국민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일으키게 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 국어를 아끼고 높이며, 우리 국어의 실력을 잘 닦아, 더욱 아름답고 더욱 바르게 만들겠다는 마음을 굳게 가지도록 하여 줄 것이다.
- (ㄷ) 역사적으로 우리 국문화의 이어 옴과 닦아 옴과 쌓아 놓음을 잘 알리어, 여기에서 기쁨과 고마움을 깨닫게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더 닦으며 또 새로 뚫어내어, 우리 국문화를 한층 더 빛나게 하고, 또 나아가 이를 펼쳐서 세계 문화에 큰 바침이 되게 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칠 것이다.

(三) 교수 사항

국어는 읽기와 말하기와 듣기와 짓기와 쓰기로 나누어 가르친다. (중략)

(四) 교수의 주의: (중략)

각 학년 교수 시간 배당 기준(생략)

ㄴ. 중학교 교수요목

(一) 교수 요지

국어를 잘 알고 잘 쓰게 하며, 우리의 문화를 이어 확충 창조하게 하고,

겸하여 지덕(智德)을 열어 건전한 국민정신을 기르기로 요지를 삼음.

(二) 교수 방침

- (가) 국어의 됴됨이를 밝히며, 그 국민다운 사상 감동의 표현 방법을 가르치어, 국어의 올바른 이해와, 사상, 체험의 명확한 발표를 익히고, 국어 애중의 생각을 기름.
- (나) 국어 국문의 전통과 그 표현을 이해하게 하고, 국어 국문의 사전(史的) 발달을 구명하여, 종래의 사상 문화의 연원과 발달을 자세히 알려, 국민정신을 기르고, 우리 문화를 창조 확충하게 하는 신념을 배양함.
- (다) 국어 국문을 통하여 덕육, 지육, 체육 등의 정신과 식견을 길러, 건전한 중견국민의 사명을 스스로 깨닫게 함.

(三) 교수 사항

교수 사항은 아래와 같음. 읽기, 말하기, 짓기, 쓰기, 문법, 국문학사. (중략)

(四) 교수의 주의: (중략)

각 학년 교수 시간 배정 표준(생략)

이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기의 국어 교육관은 ‘국어의 이해’와 ‘사용’을 바탕으로 한 ‘문화 창조’ 및 ‘국민정신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교수 사항’에서 국민학교는 ‘읽기, 말하기, 듣기, 짓기, 쓰기’의 5영역으로 구성된 데 비해, 중학교는 ‘읽기, 말하기, 문법, 짓기, 쓰기, 국문학사’의 6영역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성에서 ‘짓기(작문)’와 ‘쓰기(서법)’를 이원화한 것은 근대식 학제 도입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교과 개념<sup>3)</sup>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중학교에서 ‘국문학사’를 둔 것은 일제 강점기에 가능했던 고전 연구의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문법’이 국어과의 한 영역으로 설정된 것도 일제 강점기부터 지속되어 온 문법 연구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4)</sup>

3) 근대식 학제가 처음 도입된 1895년의 소학교령에서는 ‘독서’, ‘작문’, ‘습자’를 교과로 설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학교 교수요목’의 ‘교수 사항’의 ‘문법’에서는 “국어의 소리, 글자, 어법, 표기 등의 대요를 가르쳐 국어의 됴됨이와 그 특질을 이해하게 하고, 또 현대어, 신조어, 고어, 방언, 표준어, 외래어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얻고, 국어의 사적 발달의 개요(概要)를 알게 함.”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이 시기 문법 교육의 목표가 ‘국어(음성 언어, 문자 언어, 구조와 특질 등)’와 ‘국어의 사적 발달’의 ‘이해’를 목표로 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문법 교육이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명확한 인식을 얻고’라는 표현을 됴으로써 ‘이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국어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교수요목’의 ‘요지’에 진술된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과 글을 익혀, 바른 말과 맞는 글을 잘 깨쳐 알게 하고, 또 저의 뜻하는 바를 바르고, 똑똑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힘을 길러 주고”(국민학교)나 “국어를 잘 알고 잘 쓰게 하며”(중학교)를 고려할 때 타당성을 얻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수요목’이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여부이다. 엄밀히 말해 건국·과도기의 교과서 제도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교육과정의 적용 여부가 확실적이지 않았다. 이 점에서 이 시기 발행된 문법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 2. 교과서 제도와 문법 교과서

미군정기의 교과서 제도는 임시방편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국어’, ‘말본(문법)’, ‘작문’ 등의 검인정 교과서<sup>4)</sup>가 다수 출현한다.

4) 예를 들어 심의린(1949), 최현배(1945), 이상춘(1946) 등의 교과서는 일제 강점기에 저술된 것을 교정한 것들이다.

그 후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공포되면서 교과서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sup>6)</sup> 이때 공포된 교육법 제8장 125조에서는 “사범대학, 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정’, ‘검정’, ‘인정’ 세 가지 형태의 교과서가 출현한다.

건국·과도기의 국어과 교과서는 이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예를 들어 미군정기에는 ‘국어, 문법, 작문’이 개인 저술과 국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지만, 검정제 실시 이후에는 ‘국어’의 경우 국정으로 남고, ‘문법’과 ‘작문’은 교과서 검정을 하였다.

현재 발견된 건국·과도기(1945~1955)에 출판된 문법 교과서는 대략 29종으로 보인다. 이들 교과서는 대부분 김민수·하동호·고영근 공편(1977)의 ‘역대 한국 문법 대계’에 포함되어 있다. 연도별 발행된 교과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건국·과도기에 발행된 문법 교과서

연도	교과서명	저자	출판	역대한국어문법대계
1945	한글 국어문법	신태화	삼문사	1의 57(1부 23책, 표지만)
1945	중등조선말본	최현배	정음사	1의 67(1부 27책)
1946	한글의 문법과 실제	박종우	부산 중성사 출판	1의 64(1부 26책)
1946	쉬운 조선 말본	박창해	계문사	1의 65(1부 66책)
1946	국어문법	이상춘	조선국어학회	1의 37(1부 14책)
1946	중등조선말본	최현배	정음사	없음
1947	중학 국문법책	김근수	문교당	1의 71(1부 28책)

5) 미군정기 검인정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일제 강점기와 마찬가지로 검정 제도 운영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다.

6)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2011: 296-297)을 참고할 수 있다.

1947	표해식 국어 문법: 국어 풀이써 가름(국어 용언 분류)	유재현	국학사	1의 66(1부 26책)
1947	중등 새말본	장하일	교재연구사	1의 74(1부 29책)
1947	신편 고등국어문법	정렬모	한글문화사	1의 61(1부 25책)
1948	중등 말본	김윤경	동명사	1의 55(1부 22책)
1948	고급용 나라말본	김윤경	동명사	1의 54(1부 22책)
1948	중등 국어 문법	이영철	을유문화사	1의 78(1부 30책)
1948	고급 국어문법	정렬모	고려서적 주식회사	1의 63(1부 25책)
1948	초급 국어 문법 독본	정렬모	고려서적 주식회사	1의 62(1부 25책)
1948	말의 소리(유인)	주왕산	동양사	1의 72(1부 28책)
1948	중등 조선말본	최현배	정음사	없음
1948	중등 조선말본-초급학년 씀	최현배	정음사	없음
1948	중등 말본	최현배	정음사	없음
1949	개편 국어 문법	심의린	세기과학사	1의 60(1부 24책)
1949	재미나고 쉬운 새 조선 말본	이인모	금릉도서 주식회사	1의 77(1의 30책)
1949	표준 말본 중학 1 2학년	장하일	종로서관	1의 75(1부 29책)
1949	표준 말본 중학 1 2학년	장하일	종로서관	1의 75(1부 29책)
1949	표준 말본 중학 3학년	장하일	종로서관	1의 76(1부 29책)
1949	고등 말본	최현배	정음사	없음
1950	중등국어문법	박태운	서울문화사	1의 73(1부 28책)
1951	표준 우리말본	장하일	대동문화사	없음
1953	표준 우리말본	정인승	을유문화사	없음
1954	고전문법	이승녕	을유문화사	1의 88(1부 33책)
1955	초급 국어문법	이희승	박문출판사	1의 85(1부 32책)

이들 교과서를 저자별로 분류할 경우, ‘최현배(6), 장하일(4), 정렬모(3), 김윤경(2), 김근수, 김윤경, 박종우, 박창해, 박태운, 신태화(신명균), 심의린, 유재현, 이상춘, 이승녕, 이희승, 이영철, 이인모, 정인승, 주왕산’의 분포를 보인다. 이 표를 대상으로 할 때 복수의 저술을 남긴 사람은 4인이다. 그런데 1956년 교과서가 대부분 교수요목기의 판본과 동일한 점을 고려한

다면<sup>7)</sup>, 이를 포함할 경우 ‘이승녕(2), 이희승(3), 정인승(3)’은 복수의 저작자가 된다. 이관규(2004나)에서는 이들 교과서의 영향 관계를 고려하여 ‘최현배, 정렬모, 김윤경’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sup>8)</sup> 그러나 교과서 저작자 간의 영향 관계를 고려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개별 교과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문법 교육의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장하일’의 경우 정렬모의 영향을 받았지만, 문법 교과서를 집필하는 의도가 ‘품사 중심’의 어휘 설명보다 ‘문장 구성’의 방법을 쉽게 익히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문법 교과서와 차별되는 면이 있다.

### Ⅲ. 건국·과도기 문법 교육의 특징

#### 1. 문법 교육관

개별 저자가 문법 교과서를 집필할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문법 교육관이 존재한다. 이 문법 교육관은 이 시기 문법 연구나 문법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 시기 대부분의 저작자들은 ‘문법 = 말과 글의 법칙’, ‘문법 교육의 필요 = 말과 글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바른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9)</sup> 그런데 말과 글의 법칙을 강조하는 입장도 다소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국어의 개념과 가치를 설명

7) 이는 국정 국어과 교과서도 마찬가지이다. 제1차 교육과정 공포가 1955년에 이루어졌지만, 실제 교과서의 판본은 1957년 이후에 달라진다.

8) 이관규(2004나)에서는 ‘김근수, 장하일’의 경우 ‘정렬모’와의 영향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9) 이러한 특징은 교재의 ‘머리말’, ‘일러두기’, ‘체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연구자에 따라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

하면서 문법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교재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말과 글을 바르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편찬한 교재도 있다. 이 점에서 전자의 교재를 ‘문법학 중심’의 교재로 분류하고, 후자의 교재를 ‘의사소통 중심의 교재’로 분류한다. 또한 국어 문법이 문화 창달의 주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교재를 ‘문화 전수를 강조한 교재’로 분류한다. 각 교재가 둘 이상의 특징을 갖고 있을 경우 복합적으로 표기한다.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이 시기 각 교재의 특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3) 개별 교과서에 나타난 문법관, 문법 교육관

연도	교과서명	저자	문법·문법 교육관	특징
1945	중등조선말본	최현배	‘일러두기’: 一. 이 책은 中等學校의 朝鮮語科 教授의 補用이 되며, 또 一般으로 朝鮮語 研究에 對하는 이에게 그 基礎的 知識을 대어주는 功務가 되게 하기 爲하여 지은 것이다.	문법학
1946	국어문법	이상춘	머리말에 용도, 술어 선택 이유 등을 서술함.	문화 전수
1946	한글의 문법과 실제	박종우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또한 새로운 우리 문화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한글 보급의 차원, 한글문화 보급회 경남 지부.(머리말)	의사소통 + 문화 전수
1946	쉬운 조선 말본	박창해	겨레 문화의 말뭉치(머리말)/ 말본: 우리가 남의 말이나 글월을 듣고 읽을 때에 그것을 바로 깨달아 알며, 또한 제가 가진 생각을 똑 바르게 남에게 나타내려면 일정한 본에 맞는 말을 하거나 글월을 적어 놓아야 합니다. ‘말의 본’이 말본(들어가는 말)	의사소통 + 문화 전수
1947	중학 국문법책	김근수	문법: 말을 바로 함에 지켜야 할 법 문법을 배우는 까닭: 말을 바로 하고 바로 알아들으려면 문법을 배워야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pp.1-2)	의사소통
1947	중등 새말본	장하일	조선말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 풀이하는 요령을 얻지 못한 데도 있다.(머리말)	문화 전수 (문장구성관)
1947	표해식 국어 문법: 국어 풀이씨 가름	유재현	말의 어법을 밝혀 통일을 꾀하는 것이 중요, 말은 겨레의 혼, 최현배 문법 체계를 따름(머리말)	문법학 (어법 통일)

1947	신편 고등국어문법	정렬모	‘머리에 두는 말’에서 책을 쓰게 된 배경 설명, ‘말의 본질’을 설명하고 ‘말본’의 개념을 제시함.	문법학
1948	중등 말본	김윤경	사람은 사회적 동물, 사람은 생각을 바꾸는 방법으로 말을 쓰게 되었다. 말에는 숨은 법칙이 있다.(제1편 총론)	의사소통
1948	중등 국어 문법	이영철	‘머리말’에서 용도 및 구성 설명/“문법: 표준 말, 글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으나, 이를 문법이라 한다. 문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을 바로 발표할 수도 없고, 남의 말, 글을 바로 이해할 수도 없다.”(총설)	의사소통
1949	개편 국어 문법	심의린	1936년 <중등학교 조선어문법>을 개편한 것임: ‘국문’ 중시 사상을 바탕으로 함.	의사소통
1949	재미나고 쉬운 새 조선 말본	이인모	‘머리말’에서 용도 및 구성 설명, “말이 비록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슬한 사람에게 뜻을 두루 통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말의 뉘뉘이, 자리 잡힘에 일정한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칙을 말본이라 하며, 말본을 갈고 닦는 학문을 말본갈(文法學)이라 이른다.”(들어가기)	의사소통
1950	중등국어문법	박태운	초학자가 배우고 익히기 쉽게, 품사와 문장론 중심, 조선어학회의 <조선말근사전>, 이운재의 <조선말사전>의 품사 분류 방식을 따름 (머리말)	의사소통
1953	표준 우리말본	정인승	‘머리말’과 ‘일러두기’에서 저술 의도와 책의 특성을 밝힘	문법학
1954	고전문법	이승녕	고어 문법서가 없음을 고려하여 저술, 장래에 학술적인 역사 문법 계획 중(자서)	고전 이해
1955	초급 국어문법	이희승	‘알아들 것’에서 용도와 구성 설명, “세계의 각 나라는 대개 각각 독특한 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그 나라의 국어라 이른다. 우리나라 말은 우리 국어다. 다만 국어라고만 하면 곧 우리나라 국어란 뜻으로 많이 쓰인다.”(제1편 제1장), “글월을 이루는 법칙을 문법(文法)이라 이른다.”(제1편 제2장)	문법학(국어 개념 정의)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시기의 문법관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는 ‘문법은 곧 말의 법칙’이며 ‘문법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말과 글을 바르게 알고 의사소통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는 '박종우, 김근수, 김윤경' 등에서 두루 찾아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국어 문화를 전수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 또한 '최현배, 박종우, 박창해, 이송녕, 이희승' 등과 같이 대부분의 저술에 나타난다.<sup>10)</sup> 이 점에서 '쉽고 바르게'를 지향하는 문법 교육관과 '문화 전수'를 강조하는 문법 교육관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전자의 경우 '장하일, 김근수' 등과 같이 '문장 구성 원리'를 설명하거나 '문법과 맞춤법'의 관련성을 설명함으로써 문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 경우가 많고, 후자의 경우 '최현배, 김윤경, 정렬모, 이희승, 이송녕, 정인승' 등과 같이 '문법학'의 체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sup>11)</sup>

## 2. 문법 교육의 내용

문법관이나 문법 교육관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교과서는 '교육할 가치'를 갖고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배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표를 지향한다. 그럼에도 건국·과도기의 문법 교과서는 저작자마다 내용 선정과 배열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다음은 각 교과서의 구성 체계이다.

### (4) 교과서의 구성 체계 및 내용상 특징

연도	교과서명	저자	구성	특징
1945	중등조선말본	최현배	모두 풀이, 소리갈(음성학), 씨갈(품사론), 월갈(문장론)	음운, 어휘 문장

10) 이러한 문법관은 건국·과도기의 국어 관련 논술에서 빈번히 발견된다. 이 시기 국어 교육 관련 논술 자료에 대해서는 허재영(2011: 303)을 참고할 수 있다.

11) 물론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교육용 재료'를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심층적인 연구 성과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46	국어문법	이상춘	첫째 편 소리, 둘째 편 단어, 셋째 편 글월	음운, 어휘, 문장
1946	국어문법	이상춘	첫째 편 소리, 둘째 편 단어, 셋째 편 글월	음운, 어휘, 문장
1946	한글의 문법과 실제	박중우	머리말, 제1편 총설(모두풀이), 제2편 음성학(소리갈), 제3편 단어(품사, 낱말), 제4편 월갈(문장론)	음운, 어휘, 문장
1946	쉬운 조선 말본	박창해	머리말, 씨가름,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직씨, 어떻씨, 잡음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 거듭씨, 씨가지, 씨의 몸바꿈, 월, 우리말 한자 견출표	어휘 문장 중심
1947	중학 국문법책	김근수	총설: 문법 배우는 까닭, 글자와 소리, 품사, 글월의 성분과 분사, 제이편 품사: 체언, 용언(제육절 모음조화), 준체언(관형사, 부사), 조사, 제삼편 글월, 부록	어휘, 문장 중심
1947	중등 새말본	장하일	모두풀이, 입자씨, 입자자리, 풀이씨, 풀이자리, 어떤 자리, 어찌씨, 어찌자리, 느낌씨, 홀로자리, 월의 조각의 자리와 줄임	문장 구성 원리 중심
1947	표해식 국어 문법: 국어 풀이씨 가름 (국어 용언 분류)	유재현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풀이씨 가름, 제3장 풀이씨 줄기 가름, 제4장 풀이씨 줄기 가름 보기 표, 제5장 풀이씨 줄기 가름 모두표, 제6장 흔히 쓰이는 풀이씨 줄기 보기 모음, 제7장 풀이씨 씨갈 4가름, 제8장 풀이씨 끝바꿈 가름, 부록	용언
1947	신편 고등국어문법	정렬모	첫째 편 총론(언어, 말본갈), 둘째 편 낱말, 셋째 편 감말 본성론(품사,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넷째 편 감말의 풀(상), 다섯째 편 감말의 빛(격), 여섯째 편 감말의 상관론(문장론)	음운, 어휘, 문장
1948	중등 말본	김윤경	소리갈, 씨갈(임씨, 움씨, 겹씨, 잇씨, 맺씨, 언씨, 억씨, 늑씨, 더음), 월갈	음운, 어휘, 문장
1948	중등 국어 문법	이영철	제1편 음성학, 제2편 품사론, 제3편 문장론	음운, 어휘, 문장
1949	개편 국어 문법	심의린	총설(두루풀이: 국문, 음성, 단어와 품사, 각 품사의 의미, 복합어와 접어, 언어의 조직) 제2편 품사 각론(씨갈: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보조용언, 조용사, 조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접어), 제3편 문장론(월갈: 문과 구, 문의 성분, 문의 성분의 위치와 생략 등)	음운, 어휘, 문장

1949	재미나고 쉬운 새 조선 말본	이인모	들어가기, 씨, 월의 조각, 월의 감, 소리의 갈래와 소리마디, 소리의 달라짐, 붙임	어휘, 장법, 음운
1950	중등국어문법	박태운	제1편 품사론(품사의 총론, 품사론 각론), 제2편 문장론	어휘 문장 중심
1953	표준 우리말본	정인승	모두풀이(우리말의 소리 법칙, 우리말 짜임 방식), 씨의 풀이, 월의 풀이	음운, 어휘, 문장
1954	고전문법	이승녕	총설(문법이란 무엇인가?, 말의 소리, 말의 모양), 제2편 품사론, 제3편 문장론	음운, 어휘, 문장
1955	초급 국어문법	이희승	제1편 총설(국어와 국문, 글월과 문법, 품사 개설 등), 제2편 품사, 제3편 글월	음운, 어휘, 문장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시기 교과서는 대부분 ‘음운(소리), 어휘(단어와 품사), 문장의 세 분야를 다룬 교과서’(16종), ‘어휘와 문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과서’(2종), ‘문장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3종), ‘음운과 어휘만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5종), ‘기타’(3)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이 시기 문법학이 ‘음운, 어휘, 문장’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한다.<sup>12)</sup>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 교과서 가운데 ‘머리말’에서 책의 용도와 구성 원리를 설명하면서, ‘술어(용어) 사용’의 문제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 (5) 술어 사용의 문제

- ㄱ. 김근수(1947): 이 책에는 평이하게 하기 위하여 될수록 새로운 술어를 쓰기를 피하였으나, 다른 문법책과의 연락을 고려하여 새로운 술어를

12) 이는 일제 강점기까지의 ‘문전(文典)’이 대부분 ‘문자’, ‘품사’, ‘문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 대비된다. 예를 들어 이완웅(1926)은 제1편 총론에서 ‘언문’, ‘단어·문·품사’, ‘각 품사의 의미’, ‘합성어·접두어·접미어’를 다루고, 제2편 각론에서 품사별 용법, 제3편 ‘문(文)’에서 ‘문의 성분’, ‘위치·생략’, ‘중복’, ‘구(句)’, ‘구조상의 분류’, ‘문체’를 다루었다. 이는 심의린(1937)도 비슷하다.

두서(頭書)에 마주대어 놓았습니다.(일러두기)

- 나. 이영철(1948): 문법 술어는 임씨, 읍씨, 언씨, 억씨, 늑씨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라 하였다. 이는 한자로 된 말도 귀화한 것은 우리말이므로 구태여 새 술어를 써서 골치만 아프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머리말)

이러한 설명은 현장에서 문법을 직접 가르치는 사람들이 집필한 교재에서 빈번히 발견된다.<sup>13)</sup> 이는 당시 문법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어의 혼란이 교육의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시기 상당수의 교재는 용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고유어 용어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5종, 한자어 용어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6종,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주로 말소리 및 문장 관련은 고유어, 단어와 품사 관련은 한자어)가 3종, 고유어와 한자어 용어를 대조하거나 병기하는 경우가 15종이어서, 실제 용어 사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품사'와 관련된 문제는 용어 사용이나 품사의 설정 내용이 저자마다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 저서의 용어와 품사 분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저서별 용어 및 품사 분류 내용

연도	교과서명	저자	용어	품사	품사 수
1945	한글 국어문법	신태화	한자 용어	명사, 형용사, 동사, 조사, 접속사, 종지사, 관사, 부사, 감탄사	9
1945	중등조선말본	최현배	대조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직씨, 어떻씨, 잡음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	10
1946	한글의 문법과 실제	박종우	대조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직씨, 어떻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	9

13) 오랜 기간 문법을 연구해 온 저자나 영향 관계가 뚜렷한 저자의 경우 용어 사용과 관련된 설명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1946	쉬운 조선 말본	박창해	고유어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직씨, 어떻 씨, 잡음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	10
1946	국어문법	이상춘	혼합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토	6
1946	중등조선말본	최현배	대조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직씨, 어떻 씨, 잡음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	10
1947	중학 국문법책	김근수	한자 용어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동사, 형용사, 존재사, 지정사), 준체언(관 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조사(조 용사, 조사)	13
1947	표해식 국어 문법	유재현	대조	용언(동사, 형용사, 지정사)	기타
1947	중등 새말본	장하일	대조	주시경, 이상춘, 최현배, 정렬모를 기 준으로 입자씨, 풀이씨, 어떤씨, 어찌 씨, 느낌씨, (씨끝)	5
1947	신편 고등국어문법	정렬모	대조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5
1948	중등 말본	김윤경	대조	임씨, 언씨, 움씨, 겹씨, 잇씨, 땃씨, 언 씨, 억씨, 늑씨	9
1948	고급용 나라말본	김윤경	대조	임씨, 언씨, 움씨, 겹씨, 잇씨, 땃씨, 언 씨, 억씨, 늑씨, 더음	10
1948	중등 국어 문법	이영철	혼합	관념어=실사(명사, 대명사, 수사, 형 용사, 부사, 감탄사), 형식어=허사=토 (조사, 접속사, 종지사)	9
1948	고급 국어문법	정렬모	대조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5
1948	초급 국어 문법 독본	정렬모	혼합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5
1948	말의 소리(유인)	주왕산	한자 용어	기타	기타
1948	중등 조선말본	최현배	대조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직씨, 어떻 씨, 잡음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	10
1948	중등 조선 말본-초급학 년 씀	최현배	고유어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직씨, 어떻 씨, 잡음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	10

1948	중등 말본	최현배	고유어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직씨, 어떻 씨, 잡음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	10
1949	개편 국어 문법	심의린	대조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존 재사, 지정사, 조사, 조용사, 부사, 관 형사, 접속사, 감탄사	13
1949	재미나고 쉬운 새 조선 말본	이인모	고유어	임자씨, 풀이씨, 매김씨, 어찌씨, 느낌 씨, 토씨	6
1949	표준 말본 중학 1 2학년	장하일	대조	임자씨, 풀이씨, 어찌씨, 가지, 매김씨	5
1949	표준 말본 중학 3학년	장하일	고유어	기타	기타
1949	고등 말본	최현배	대조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직씨, 어떻 씨, 잡음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	10
1950	중등국어문법	박태운	한자 용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접두사와 접미사	9
1951	표준 우리말본	장하일	대조	품사 설정보다 문장 구성 원리에 중 점을 둠	5
1953	표준 우리말본	정인승	대조	이름씨, 움직씨, 그림씨, 매김씨, 어찌 씨, 느낌씨, 토씨	7
1954	고전문법	이승녕	한자 용어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 형사, 부사, 감탄사	8
1955	초급 국어문법	이희승	한자 용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접속사, 조사	10

품사 분류의 결과는 대체로 5~13개까지 분포한다. 분류 항목이 많아진 이유는 ‘체인(임자씨)’을 ‘명사, 대명사, 수사’로 세분하고, ‘용언(풀이씨)’을 ‘동사, 형용사’로 세분하는가, ‘접사’ 및 ‘조사’를 품사로 설정하는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점에서 현행 학교 문법과 가장 일치하는 품사 분류를 한 것은 박종우(1948)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교과서는 한글문화보급회 경남 지부의 한글 보급을 목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극로의 교열을 거쳤다.

또한 김윤경(1948)은 생각을 나타내는 ‘생각씨(으뜸씨)’로 ‘입씨(체언), 언씨(형용사), 움씨(동사)’를 설정하고 ‘토씨(붙음씨)’로 ‘껏씨(주어토와 수식어 토=조사), 잇씨(접속사), 맺씨(종지사), ‘모임씨(꾸밈씨)’로 ‘언씨(관사), 억씨(부사), 늑씨(감탄사)’를 설정한 뒤 ‘더음(접사)’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다른 저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데, 그 이유는 ‘씨’를 “말의 날덩이(단위)”라고 정의하여 ‘단어’의 개념보다 ‘문법 단위’의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10품사를 설정한 최현배(1948), 이희승(1955) 등은 ‘잡음씨’ 또는 ‘존재사’를 설정한 결과로 10품사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건국·과도기의 문법 교과서는 통일 문법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어의 사용과 품사 분류의 차이 등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문법 통일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 문법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학교 문법’이라는 용어가 언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이송녕(1955)에서는 이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

#### (7) 이송녕(1955)의 학교 문법 개념

(전략) [2] 우리가 학교에서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글을 바르게 쓰고 글의 뜻을 똑똑히 알기 위한 까닭이다. 그리하여 이 문법 공부가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바르게 할 수 있고, 남의 이야기를 똑똑히 알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중략)

[4] 우리가 배우는 문법을 학교 문법(學校文法 : school grammar)이라고 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국어를 가지고 글을 어찌 바르게 쓰느냐를 공부하는 문법이다. (중략)

[6] 문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부가 중요한 것이다.

- (1) 우리는 말의 소리를 공부해야 한다.(설명 생략)
- (2) 말의 뜻과 모양과 말들의 서로 엮여지는 법을 공부할 것.(설명 생략)
- (3) 글은 어찌 써야 하는가를 공부해야 한다.(설명 생략)

[7] 우리는 국민학교나 또는 중학교에 들어와서, 배운 국어책에서 맞춤법을 다시 복습하고, 말을 그같이 어렵게 써야 하는 이유를 생각한다면, 국어의 문법을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맞춤법은 문법의 법칙에서 정하여진 것이니, 국어책에 나오는 맞춤법을 문법에서 보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하략)

이승녕(1955)의 진술과 같이, 학교 문법은 말과 글을 바르게 쓰기 위해 필요한 문법이다. 특히 문법 교육에서 중요한 것으로 ‘소리 중심, 법칙 중심, 쓰기 중심, 맞춤법 원리’ 등을 제시한 셈인데, 이는 문법 교육의 관점과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문법 교수·학습 방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 3. 교수·학습 및 평가

건국·과도기의 문법 교과서도 다른 국어과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의 교수·학습 또는 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두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문법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습’, ‘익힘’ 등의 활동을 두어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들 교과서의 편제를 분류하면 단순히 ‘설명’만을 제시한 것이 10종이며, ‘설명’ 다음에 ‘익힘’을 둔 것이 9종, ‘설명’ 다음에 ‘연습’을 둔 것이 10종이다. 이를 고려하면, 건국·과도기에는 ‘연습 활동’ 중심의 ‘익숙하게 하기’를 주된 교수·학습 방법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교재에서는 교수·학습과 관

련된 주의 사항을 두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최현배(1948)의 『중등말본』이다.

### (8) 일러두기

(전략) 2. 이 책은 이름은 말본이로되, 그 내용인즉 다만 말본에 한하지 않고, 소리내기와 대중말과 맞춤법을 혼연히 한 덩어리로 하여, 종합적 국어 교육의 새 방법에 알맞도록 하기로 힘썼다.

3. 그러한즉, 이 책을 가르침에 있어서, 배우는 이에게 말본의 규칙을 기계적으로 기억시키기를 힘쓰지 말고, 훨씬 종합적으로 또 귀납적으로 인도하여, 우리말의 바른 소리내기와 대중말 쓰기와 바른 맞춤 쓰기를 깨쳐 얻도록 하기를 힘써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항상 바른 대중말을 쓰되, 입으로 바른 소리를 내며, 손으로 바른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르기를 힘쓸 것이다.

이 진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종합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종합이라는 말은 ‘소리내기’, ‘대중말’, ‘맞춤법’을 함께 아우르는 개념이다. 달리 말해 문법 규칙만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국어 교육의 전체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이는 ‘화법’이나 ‘독법’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이보다 다소 늦은 최현배(1956)의 『중등말본』1-3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이 교과서는 읽기나 말하기 자료를 제시하고 그 속에서 ‘말본 공과’를 두어 문법 지식을 탐구하도록 한 교재이다. 이처럼 교재에서 종합적인 면을 고려한 것은 문법 교수·학습이 단순한 익힘 중심에서 ‘이해’와 ‘탐구’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 IV. 결론

이 연구는 ‘건국·과도기’(1945~1955)의 문법 교육의 주요 내용과 교과서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수요목’과 교과서 제도를 기술하고, 이 시기 발행된 교과서 29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 문법 교과서의 저자별 분포에서는 최현배(6), 장하일(4), 정렬모(3), 김윤경(2)의 순서로 나타나며, 1956년 포함할 경우 이승녕(2), 이희승(3), 정인승(3)이 복수 저자로 등장한다.

둘째, 이 시기 문법 교육관을 살펴본 결과, “문법=말의 법칙”, “문법 교육의 필요=말과 글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의사소통 관점)”라는 등식이 일반적이었으며, 일부 문법학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교재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재가 의사소통을 위해 문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 점에서 문법과 맞춤법의 관계, 문장 구성 원리 등 제시하고자 한 교재가 나타났다.

셋째, 문법 교육의 내용은 ‘음운, 어휘(단어와 품사), 문장’의 세 부분을 중심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문법 술어 사용이나 품사 분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차이가 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술어 사용이나 품사와 관련된 이견이 많았는데, 그 결과 학교 문법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넷째, 교수 학습 방법, 평가 원리는 ‘익힘’, ‘연습’ 중심의 익히기에서 ‘종합적인 문법 교육’을 지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문법 교수·학습 방법이 ‘이해중심’에서 ‘탐구 중심’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국어과·한문과 교육과정 기준(1946~1997)』, 교육부, 2000.
- 김광해, 『국어 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김민수, 학교 문법론, 『서정범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집문당, 1986.
- 김민수·고영근·하동호 편, 『역대 한국어 문법 대계』, 탑출판사, 1977.
- 박봉배, 『국어교육전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7.
- 박상만, 『한국 교육사』(하), 중앙교육연구소, 1959.
- 심의린, 『중등학교 조선어 문법』, 조선어연구회, 1937.
- 왕문용·민현식, 『국어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1993.
- 윤여탁 외, 『국어교육 100년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이관규(가), 『학교 문법론』, 월인, 2004.
- \_\_\_\_\_(나), 『문법 교과서의 변천』, 『문법교육』1, 한국문법교육학회, 2004. pp.45-77.
- \_\_\_\_\_, 『학교 문법의 성격과 역사』, 『어문논집』37, 1998.
- 이완응, 『중등 교과 조선어 문전』, 조선어연구회, 1926.
- 허재영, 『문법 교육과정 변천』, 『문법 교육』1, 한국 문법교육학회, 2004. pp.1-43.
- \_\_\_\_\_, 『국어과 교육론』, 역락, 2011.
- \* 그 밖의 본문에 표로 제시한 교과서 서지 사항은 생략함.

**Abstract**

## Grammar Texts and Characteristic of Grammar Education during Foundation of Country and Transition Period

Heo, Jae-Young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grammar texts and characteristic of grammar education during the foundation of the country and the transition periods from 1945 to 1955. I searched for the rules of education and curriculum of Korean education in this time, and I gathered 29 grammar texts. The KYOSU - YOMOK(教授要目) curriculum was enact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in 1946, and had an effect before the 1st curriculum(1955).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 classified grammar texts and I found many authors of texts such as Choi Hyeonbae(6), Jang Hail(4), Jyeong Ryeolmo(3), Kim Yunkyeong(2), Lee Sungyoung(2), Lee Heisung(3) and Jeong Inseung(3) etc. Second, I found the view of grammar education based on the need of grammar theories, communication and culture creation. Third, many of the texts consisted of phonology, lexicology and structure of sentence. Fourth, teaching methods focused on understanding, but some texts showed research methods.

Key Word : grammar texts, grammar education, view of grammar education, curriculum, contents, teaching method.

허재영

소속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주소 :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 인문관 319호

전화번호 : 010-9267-9947 / 031-8005-3879

전자우편 : hjy435@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4년 3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